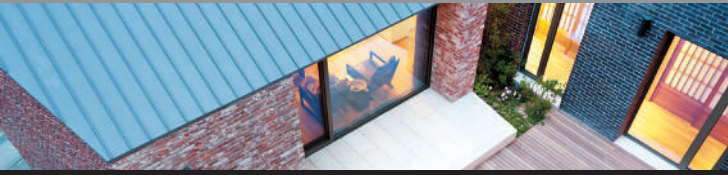


4~5» 길게 읽기 - 대학평가 어디로 가고 있나



8» 서울시 건축상 대상 정재현(건축학) 교수



2015학년도 2학기 수시강의 평가 시행안내

수시 강의 평가 진행기간 : 2015. 10. 5(월)~ 2015. 11. 27(금) (8주)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수시 강의평가는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 - 학생 공동 선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 및 연구문화 개선’ 공동 선언식

지난 6일 우리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 및 연구문화 개선’ 공동선언식이 있었다. 교수회의 김홍두(정보전자신소재공학) 의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maker

국제 기능올림픽 제빵분야 금메달 수상한 유재희(호텔관광학 2015) 양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냈다”

박기윤 기자 kyoony@khu.ac.kr

#.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국제 기능올림픽에 제빵분야 국가대표로 출전한 유재희(호텔관광학 2015) 양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국제 기능올림픽은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직능 관련 국제대회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유양을 만나 그의 빵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 양은 “지금까지의 고된 연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인 것 같아 뿌듯했다”며 “주변 사람의 응원, 내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가 있어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빵 만드는 작업에만 투자했다.

부상도 많이 당했다. 화상을 입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했으며, 손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 그는 “기능올림픽에 매진하느라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게 됐다”며 “훈련을 받느라 기존의 학과 생활이나 캠퍼스 생활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리는 대학생활은 거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감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빵을 만드는 일이 즐겁기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빵과 만들기 가장 어려운 빵은 무엇일까. 대체로 모든 빵을 좋아한다는 유 양. 그는 “어떤 빵이든 만들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크로와상이나 바게트 빵이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 유 양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제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며 “요즘은 빵과 관련된 분야의 명인들을 만나 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양은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정말 많지만 노력하면 전부 해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냈고, 이뤄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며 “우리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담감, 강도 높은 훈련·부상 등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당당히 이겨내고 금메달 따내 기뻐”

국제 기능올림픽은 규정상 사람이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평생에 한 번 밖에 출전할 수 없기에 참가자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다행히 올해부터 제과와 제빵이 각기 다른 두 종목으로 분리된 것이 유 양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 그에게 이런 호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매일 이뤄지는 강도 높은 훈련 역시 그를 고되게 하는 요인이었다. 훈련기간 내내 유 양은 자는

국제캠 학생은 영어학부 다전공 불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영어학부’ 다전공 금지조항, 끝나지 않는 ‘유사성 논란’

대학주보 디지털 기획 ‘하나의 경회’로 가는 길

이시은 기자 dlttdms77@khu.ac.kr

지난 2012년 우리학교가 캠퍼스 간 법적 통합을 이룬 이래로 내년이면 벌써 5년차에 접어든다. ‘완속’의 길목에 앞서, 우리신문은 진정한 ‘통합’을 위해 주시해야 할 도처의 과제들을 ‘학과 및 계열 구조’, ‘입학’, ‘취업’, ‘대학 행정기관 통합’, ‘캠퍼스 명칭’의 5가지 ‘대주제’를 통해 짚어본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학과 및 계열 구조’ 주제의 ‘유사학과’와 ‘다전공 제도’에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추후의 예정사항과 보도 내용은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본부가 다전공 이수금지 학과에 대해 불분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에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공시한 ‘2015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에 의하면 현행 제도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 소속 학생은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서울캠퍼스(서울캠) 영어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고, 서울캠 소속의 학생 역시 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다전공 이수금지 학과의 대부분이 예체능과 의료·보건 계열임을 감안할 때 일반학과로는 유일한 금지학과다.

양 캠퍼스 간 다전공 이수금지 학과 문제는 그간 복잡한 논의를 거쳐왔다. 2004년도 이후 서울캠 경영대학·국제캠 국제경영대학 통합 등

사실상의 ‘중복학과’들이 정리됐다. 지난 2012년부터 당시 ‘교육과 학기슬부’의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양 캠퍼스의 법적통합이 승인되면서 대학본부는 2011학년도 이전의 총 11개 유사전공에 대해 ‘캠퍼스 간 유사전공으로 지정된 전공/학과’라는 표현을 사용해 서로 간의 이수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전공들은 모두 모집단위가 통·폐합된 상태다.

하지만 올해 초 발표된 양 캠퍼스의 ‘2015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에 따르면 서울캠은 영어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의 다전공 금지 이유를 ‘운영지침에 의거 다전공 이수를 금지한다’라며 다소 ‘모호하게’ 표현했다. 국제캠은 ‘다전공 이수 금지 전공 외에는 이수 가능’이라는 말만 있을 뿐,

왜 금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2학기 공시자료 역시 ‘학생 소속에 따라 이수가 불가능한 전공’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한 상태다.

다전공 금지는 과거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은 “다전공 제도는 학사지원과의 의견보다 해당학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며 “해당 학과에서 이전부터 다전공 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캠 문과대학 행정실 학사담당 관계자는 “예전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측에서 학생들이 서울에 쏠릴 것을 우려해 두 학과의 이수 금지를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仁(인), 다른 존재의 고통을 느끼는 힘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④

전호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993년 어느 여름날, 중국 호북성에서 학자들이 밤잠을 설치 만한 일대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국시대 초나라의 공동묘지였던 곡점촌의 어느 무덤에서 대량의 죽간이 출토된 것이다. 죽간이란 대나무를 얇게 자른 조각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죽간을 통해 기원전 400년 무렵, 곧 지금부터 2,400년 전의 문화를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갑골문의 身자는 사람을 뜻하는 人자에 배가 볼록 나온 모양이다. 곧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것이다.

더 오래된 갑골문자의 身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골문의 身자는 사람을 뜻하는 人(인)자에 배가 볼록 나온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곧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것이다. 이 모양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인’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깃들여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미가 배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니, 아이 덕분에 자신이 뭔가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계산된 마음은 아닐 것이다.

함께 출토된 문헌에는 또 다른 모

양의 ‘仁’자가 있는데 위에 人(인)자가 있고 아래에 心(심)자가 있는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후한시대의 《설문해지》라는 책에는 千(천)자가 위에 있고 心(심)자가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仁’을 표기하고 있다. 千은 천 명의 사람을 나타낸 글자로 이때의 千은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곧 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후마니타스 칼리지 권기배 교수

대한민국과 도스토옙스키의 유토피아

» 7면

